

대출 동상이몽... 시중은행·서민들의 아우성



“빌려줄 곳 마땅찮아”

“돈 빌리기 어려워”



신DTI 도입 등 가계 빚 증가세  
중소 대출도 우량기업으로 한정  
서민·중소 대부업·저축은행으로

“꼭 막혔다. 금고에는 돈이 넘쳐 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돈 빌리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 대출이 늘고 있지만 가계 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A은행 여신 담당 임원)  
“정기예금이 늘면서 외부 수혈을 줄이고 있다.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좋지만 그만큼 여신이 따라줘야 하는데 걱정이다.”(B은행 자금조달 담당 임원)

시중은행들의 공간에 돈이 쌓이면서 외부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들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가계 부채 규제 효과가 나타나며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 빚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도 우량기업으로 한정되고 있어 돈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돈이 꼭 필요한 서민과 중소기업

〈은행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계획〉

(단위: 억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일괄신고 효력 발생기간	2018.1.10 ~2018.12.31	2018.1.3 ~2018.12.31	2017.11.22 ~2018.11.21	2018.6.12 ~2019.6.11
발행예정금액	100,000	80,000	70,000	40,000
기발행금액	49,700	36,500	44,500	0
남은 발행한도	50,300	43,500	25,500	40,000
남은기간 만기도래	37,977	52,500	38,100	50,400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업은 자금줄이 막혀 있다고 아우성이다. 최고금리 연 24%의 비싼 이자를 내 가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18일 시중은행의 2018년도 일괄신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KB국민은행은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액 8조3000억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순발행이 예상된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8조원, 7

조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남은 발행한도는 4조3500억원, 신한은행은 2조5500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6월부터 1년간 4조원 발행신고가 돼 있다. 남은 발행 한도는 4조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처럼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을 이유는 많지 않다. 당장 대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2018년 5월 중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 늘어났다. 전달

(7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10조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선제적 자금조달로 이미 곳간도 채워둔 상태다.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지난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준수를 위해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통해 고유동성자산 매입자금을 마련하면서 발행물량이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LCR 규제수준에 부합했고, 금리인상 이전 진행된 선제적 자금조달 등으로 은행채 순발행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리상승 환경과 은행들의 안정적인 예금 유치에 대한 니즈(LCR 및 예대율)가 맞물리면서 정기예금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기준 정기예금으로 26조3000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같은 기간에 유입된 예금 7조3000억원, 5조7000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적예금 분류

요건 강화 전후로 은행들의 국공채 매입이 지속 확대됐다. LCR 하락에도 여전히 2019년 규제 수준(100%)을 상회하고 있어 고유동성자산 매입을 위한 은행채 발행 필요성은 낮다”고 전했다.

돈 빌리기 쉽지 않은 환경도 이 같은 분위기에 한 몫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2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4로 조사됐다. 은행들은 가계,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은 제2 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다.

치솟는 금리도 부담이다. 한은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연간 약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취약 계층에게 금리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 실제로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자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제2 금융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4.9%, 1.4%로 작년 말보다 0.4%포인트, 0.3%포인트씩 상승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7월부터 ‘8%’ 수수료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330억 가량 수수료 감소 전망

현지통화 결제·서비스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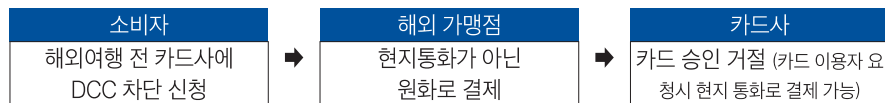
오는 7월 4일부터 최고 8%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해외원화결제(DCC)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0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 소비자의 원치않는 DCC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DCC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 DCC 전문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다 보니 소비자는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3~8%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DCC 사전차단시스템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A카드와 B카드를 소지한 경우 A카드사와 B

〈DCC 사전차단시스템 이용절차 (예시)〉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

(단위: 만건,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외이용 건수	9,207	11,179	13,175	14,062
DCC 건수 (비중)	659 (7.2)	919 (8.2)	1,188 (9.0)	1,558 (11.1)
해외이용 금액	94,119	114,995	131,306	150,623
DCC 금액 (비중)	12,154 (12.9)	15,900 (13.8)	19,877 (15.1)	27,577 (18.3)

/자료=금융감독원

카드사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DCC로만 결제가능한 가맹점 등 해외원화결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DCC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해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DCC 사전차단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3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DCC 이용 금액 2조7577억원에 DCC 차단신청 비율 40%, DCC 수수료 3%를 가정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 전에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라며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

NH농협은행

신용카드 채움포인트 증정

NH농협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NH(채움)개인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채움포인트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행결제계좌 이용 중인 고객이 농협은행계좌로 변경 시 응모 가능한 ‘너도 이벤트’와 농협은행 결제계좌 이용고객이 홈페이지 퀴즈에 응모하는 ‘나도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

‘너도이벤트’는 선착순 3000명까지 응모 가능하고, 두 가지 이벤트 모두 8월 중 결제대금 10만원 이상 출금된 고객을 대



상으로 포인트를 증정한다.

당첨고객에게는 하나로 마트 등 농협 판매처 및 농협은행 금융 거래 시 이용 가능한 채움포인트를 최대 5만점까지 증정하며, 채움포인트는 1만점 이상일 경우 캐시백 신청도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9월 중 농협은행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여행 성수기 ‘환전’ 이벤트

우리은행은 여름방학과 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우리들의 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과 위비톡, 위비뱅크를 통해 내국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간 동안 영업점에서 미화 300달러 상당 이상 환전 시 주요통화(USD, JPY, EUR)는 70%, 기타통화는 30%의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영업점에서 미화 1000달러 상당 이상 환전하는 고객은 무료여행자보험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KEB하나은행은 월드컵 원정응원단인 ‘하나 리포터’의 출정식을 갖고 러시아 현지에 응원단을 파견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정식을 마친 ‘하나 리포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러시아 월드컵 ‘현지 응원단’ 파견

KEB하나은행은 월드컵 원정응원단인 ‘하나 리포터’의 출정식을 갖고 러시아 현지에 응원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 리포터’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및 K리그 공식 후원은행인 KEB하나은행이 월드컵을 맞아 러시아 현지에 파견하는 원정응원단이다. 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를 통해 약 한 달 간 진행된 원정응원단 모집 이벤트에 4만여명이 참여해 최종 4명의 손님이 응원단으로 선발됐다.

‘하나 리포터’는 18일 스웨덴과의 1차전 관람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태극전사를 위한 열띤 현지응원을 펼칠 예정

이다. 스웨덴전 응원과 러시아 현지 분위기 전달 등의 여정을 하나멤버스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하나 리포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손님과 함께 기원할 수 있는 상품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 1998년부터 20여년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해오고 있으며 2020 시즌까지 K리그 공식후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국민적 스포츠 축제 후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IBK기업은행 기술금융 사모펀드 1500억 조성

IBK기업은행은 성장성이 유망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IBK-BNW 기술금융 2018 사모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성장금융,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함께 출자하고 기업은행과 BNW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운용한다.

주요 투자대상은 기술신용평가등급 5

등급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으로 운전자금, 시설 확충, 해외 진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중소기업의 도약 지원과 은행의 투자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